

“꿈의 리그여 어서 오라”

UEFA 챔피언스 리그 개막

내일 새벽 맨U-셀틱 1차전

지성 선발출전 여부 미지수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꿈의 무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 올 시즌 첫 걸음을 내딛는다.

13일(한국시간) 새벽 2006~2007 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조별리그 32강전이 본격적으로 kick-off되는 가운데 맨유는 다음 날인 14일 오전 4시 45분 홈구장인 올드트래퍼드에서 셀틱(스코틀랜드)을 상대로 조별리그 F조 1차전을 치른다.

박지성은 챔피언스리그와 남다른 인연이 있다.

네덜란드리그 PSV 에인트호번 시절인 2004~2005 4강전에서 거막힌 골을 터뜨려 그의 이름을 유럽에 알렸고, 이를 계기로 이듬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고 명문’ 맨유로 이적하게 되는 기회를 잡았다.

특히 박지성은 지난 2003~2004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데뷔한 뒤 24경기에서 2골을 뽑는 활약을 펼쳤고, 한국인으로선 처음으로 4시즌 연



〈박지성〉

속 UEFA 챔피언스리그에 서는 영광을 얻게 됐다.

박지성이 상대해야 할 셀틱은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명문으로 일본 축구대표팀의 ‘프리카 달인’ 나카무라 슌스케가 뛰고 있다.

박지성이 셀틱전에 선발로 출전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맨유의 측면 날개를 맡고 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벤피카전에서 관중을 향해 ‘손가락 욕’으로 날려 출전금지 처분을 받는 바람에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된

것은 박지성에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지난 시즌 챔피언 FC 바르셀로나(스페인)는 13일 새벽 A조 레프스키(불가리아)를 상대로 2년 연속 우승을 향한 서막을 연다.

또 바르셀로나와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3년 연속 맞대결을 펼쳤던 ‘부자구단’ 첼시(잉글랜드) 역시 브레멘(독일)과 같은 시간에 A조 1차전을 치른다.

이밖에 박지성의 ‘친정팀’ 에인트호벤(네덜란드)은 같은 날 강호 리버풀(잉글랜드)과 C조 1차전,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는 14일 새벽 올랭피크 리옹과 E조 1차전을 준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2일 독일 뮌헨그라드바허에서 열린 세계남자 필드하키월드컵선수권대회 한국과 인도의 경기에서 윤성훈(오른쪽)과 인도 선수가 볼을 다루고 있다. /AP=연합뉴스

초·중·고 축구 전국대회 2012년까지 전면 폐지

수업 결손을 초래했던 학원축구 전국대회가 점진적으로 축소돼 오는 2012년에는 초·중·고 전국대회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서대문구 흥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유소년 축구발전 세미나를 갖고 ‘공부하는 축구선수’ 육성을 위해 전국대회를 매년 단계별로 축소하고 이를 권역별 주말 리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학 특기자 선발을 위해 관행적으로 유지해온 ‘4강, 8강 제도’를 없애기 위해 축구협회가 팀별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별로 경기 실적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협회는 우수 선수 육성·관리 방안으로 현재 서울·인천·경기, 충청·강원, 호남·제주, 영남 등 4개 권역으로 구분돼 있는 상비군 체제를 16개 시·도별 상비군 체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유소년 선수들이 공격수 포지션만을 지양하는 현상을 감안해 해외 유학프로그램 등에 끌려와 수비수 지망 선수들에게 특전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설기현 ‘평점 5’

‘태극전사 3호 프리미어리거’ 설기현(27·레딩 FC)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4경기 연속 선발 출전, 팀의 시즌 2승을 거들었다.

설기현은 12일 오전 홈 구장인 영국 레딩

매데스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 2006~2007 프리미어리그 4차전에 오른 쪽으로 선발 출전, 76분을 뛰고 후반 31분 브리나르 군나르손과 교체됐다.

한편 영국 스포츠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는 이날 설기현의 활약에 대해 ‘평균 이하(below par)’라는 지적과 함께 ‘평점 5’라는 다소 혹독한 점수를 매겼다.

한국, 인도에 역전승

세계남자월드컵하키선수권

한국 남자하키대표팀이 제11회 세계남자 월드컵선수권대회에서 인도에 역전승을 거뒀다.

한국은 12일 독일 뮌헨그라드바허에서 열린 대회 6일째 예선리그 B조 인도(1부3패)와 경기에서 2-1로 승리, 3승1무로 4강 진출을 눈앞에 두게 됐다.

한국 하키가 남아월드컵 대회에서 열린 가장 좋은 성적은 2002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10회 대회 때의 4위다.



13일(수)

▲메이저리그<샌디에이고-신시내티>(08 : 00·Xports)

▲전국체육대회 축구연맹전 결승전(14 : 00·KBS SKY Sports)

▲장애인 체육대회(14 : 10·KBS1)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주니치>(17 : 50·SBS스포츠)

▲프로야구<한화-삼성>(18 : 00·KBS SKY Sports, 18 : 30·MBC ESPN)

▲AFC 챔피언스리그 축구<울산 현대-알사범>(19 : 00·Xports), <상하이 선화-전북 현대>(21 : 00·Xports)

유럽축구대회는?

챔피언스리그, 각국 리그 상위팀 ‘왕중왕전’

유럽축구대회는 크게 국가대항인 유럽선수권대회와 프로축구리그 최강팀을 가리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유럽 48개국의 중상위팀이 실력을 겨루는 유럽컵 대회 등 3개 대회를 나눈다.

▲유럽축구선수권대회(UEFA European Football Championships)

유럽축구연맹(UEFA)이 월드컵이 없는 짝수년마다 4년 주기로 개최하는 유럽 축구 국가대항전으로, ‘브라질이 빠진 월드컵’으로도 불린다. 대회명칭은 ‘EURO’ 뒤에 대회가 개최된 해를 붙여 ‘EURO 2008’ 등으로 쓰인다.

‘유로 2008’ 결승전은 오는 2008년 6월 8일(이하 한국시간)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에른스트 하펠 경기장에서 열린다.

▲UEFA 챔피언스리그

유럽축구연맹(UEFA) 주관 아래 유럽 각국의 프로축구리그 우승팀과 상위팀들끼리 벌이는 축구대회다. 대회 우승팀은 유럽 챔피언으로 라틴 아메리카 지역 우승팀과 세계 클럽 최강전을 갖는다. 2006~2007 시즌 결승전은 내년 5월 24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다.

▲UEFA컵(유럽축구연맹컵)

유럽축구연맹(UEFA) 소속 48개국의

각국리그 중상위팀이 실력을 겨루는 클럽 대항전으로, 총 64개팀이 본선에 올라 홈앤드어웨이의 녹다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UEFA컵 출전팀은 각국의 랭킹 등 여러 자격조건에 따라 예선 출전팀과 1회전 직행팀이 구분된다. 각국 국내리그서 챔피언을 제외한 상위권 팀들과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에 실패한 각국 챔피언들에게 참가 기회가 주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2006~2007시즌 결승전은 2007년 5월 17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햄던 파크에서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

여자가 만들었습니다.

라지통

정가 4만 8천원

주문전화 011-874-6446/02-2633-4110

011-895-4114/02-2672-0454

이용기능장 1호

기술 12년 경력의 최고실력자 이수재원장 직필수권리

심는가발 탄생!!

대대선님네 드림가발맞춤

상호: 011-807-4420-3, 073-9388

분당점: 011-807-5300